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세곤



주말에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 1년 만에 다시 찾았는데 감각 놀랐다. 외국인을 비롯하여 관광객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관광객을 모집하여 법고창신 전주를 강의하고 막걸리 마시고 숙대머리로 들려주면서 전주의 맛과 멋 그리고 흥을 느끼도록 한다.

광주 관광, 신발 끈을 다시 매자

울리기 홍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주 시청 한스타일관광과 공무원인 박종훈과 다큐멘터리 감독 강수연의 한지에 대한 열정을 담은 이 영화는 필자도 보았는데 우리 옛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 인상적이었다.

이성계가 종친들을 모아 잔치를 벌인 곳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니 한옥마을이 한눈에 잘 보였다.

계로 향하고 있다. 흥과 어울림, 전통과 현대를 같이 아우르는 세계 관광명소를 꿈꾸고 있다.

과도 곁들여서, 그러다가 생각을 광주의 관광으로 옮겨 본다. 예로부터 광주는 예향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서울에서 아시는 분이 왔을 때 광주의 어디를 구경시켜야 할지 망설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며칠 전에 광주관광위원회는 광주문화관광포럼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사는 광주의 관광자원이 인지도가 낮다고 하면서 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정상문



최근 정부와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형사책임의 정도에 대하여 그 제재나 책임의 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이다. 강도상해죄 외에도 마약 관련 범죄나 성범죄, 경제사범, 뇌물죄 등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져 재판장이 범죄의 태양이나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정형 상·하한에 대한 검토 있어야

경향에 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동기나 원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나 생활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고

승우증



요즘 들어, 우리 전통 막걸리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고목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해서 인지도를 높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해양조에 강력한 유통망을 무기 삼아 북분자 와인 시장에 뛰어들면서 영세업체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보해, 전통 막걸리까지 고사 시키려는가

리라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 영세 업체들의 노력으로 막걸리가 국민의 사랑을 받아 대기업들이 유통망을 무기로 막걸리 시장에 뛰어 들었습니다.

게에 수출하며 일본의 전통주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상은 전통주 제조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회사, 교통사고 비용 기사에 전가 말아야

택시 경력자가 10년 넘은 친구가 버스와 접촉 사고를 냈다며 한숨을 쉬었다.

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권고 사직을 당하기도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시설

금호타이어 이젠 워크아웃 '졸업' 매진해야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난 1일 직장폐쇄를 풀고 정상 조업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현재 워크아웃 상황을 인정하고 워크아웃 조기 종업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을 기초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까지 인내하며 협상을 타결시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노사 합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미가 있다. 먼저, 노조가 워크아웃 상황을 인정하고,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정부, 고삐 풀린 물가 안정 의지 있나 없나

물가 상승의 끝이 안 보인다. 석 달째 정부의 목표치(3%)를 훨씬 웃도는 5%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화되고 있다"고 한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정부의 물가 안정의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無等鼓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문에 속세로 돌아가는 날을 '야유질(邪遊)이라 하여 남에게 할 일도 없이 심부름을 보내는 등 서로 놀리는 행위를 한 것이 시초가 됐다는 것이다.

우절을 맞아 쏟아낸 장난기 넘치는 기사들이다.

거짓말



가장 일반적인 것은 프랑스 유래설이다. 1564년 샤를 9세가 그레고리력(양력)을 채택하기 전까지 새해 첫날은 4월 1일로, 3월 25일부터 춘분과 함께 신년축제가 행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公約)들이 졸졸이 '공약(空約)이 되어 가고 있다. '국익을 고려한 결단'이라는데 흑여(黠)하거나 좌선을 통해 수행을 쌓았다. 신자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수행의 보람도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唐虎完.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